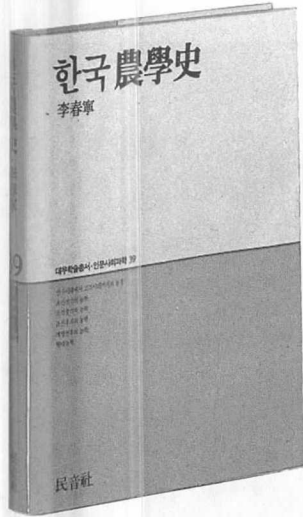


“농학사는 자연에 대한 인류의 도전사”

「한국農學史」로 우리 농학의 통사적 체계 세운 李春寧박사



선사시대부터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농학의 변천과정을 과학사와 기술사의 '겹눈'으로 살펴본 책이 나와 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농과대 학장을 역임한 李春寧교수(73)의 역저인 「한국農學史」가 그것으로 이 책에서 李교수는 우리 농학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 현단계 농학의 위상을 점검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미래 농학의 가능치를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경험을 토대로 체득한 기술의 개별적인 전승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학은 경험적인 농업관련지식을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자연과학의 한 부분인면서도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응용과학이다.

“농학은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산물입니다. 농업은 특히 인위적인 증대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농학사는 곧 자연에 대한 인류의 도전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선사 이래 70년대까지의 농학사 서술

농학은 19세기에 활발히 진전된 식물생육연구와 유전법칙 해명에 힘입어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고대농학과 근대농학으로 나누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이교수는 농학사 서술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조까지를 고대농학시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선사시대부터 고려때까지는 농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농기구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로 고대농경 사회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따라서 이교수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은” 조선시대에 이 책의 무게중심이 놓여있음을

밝히면서, 그러나 이런 사실이 당시 농학수준의 일천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자연환경에 맞는 농사법과 종자 개량이 완만하게나마 이루어졌고 고려시대에는 비록 우리 손으로 씌어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農桑輯要」를 복각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농학발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우리 풍토에 적합한 農書가 출간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농서가 황하지역의 旱地농업에 바탕을 두고 있어 풍토상 유사성이 많았다 해도 세세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우리 농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농서의 출간은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사업과 더불어 정계에서 물러나 향리에 묻혀 있는 유학자의 개별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교수가 조선시대 농학을 농서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농서에는 농업에 관한 합리적인 관찰과 해석이 담겨져 있어” 농학 발전 수준의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농학연구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유학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대다수의 농서를 유학자들이 집필함에 따라 농서에는 유학의 정신이 배어 있고 그것은 역으로 농서 분석을 통해 유학사조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농학과 근대농학간의 단절은 없다”

조선시대 농학은 편의적으로 삼분되는데 초기는 농학의 발흥기로서, 특히 세종시절에는 많은 과학기계의 발명과 더불어 최초의 종합적인 농서인 「農事直說」이 간행되었다.

“하지만 중기에는 정치상황의 혼란과 외침의 영향으로 국도가 황폐화되었고, 이에 국가차원의 정책변환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농서가 출간됩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柳馨遠과 함께 실학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朴世堂의 「穡經」이라는 이교수는 “「穡經」은 일부의 오해처럼 단순히 중국농서를 베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세당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사실과 세심한 관찰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박세당 이후 많은 실학자들이 농서를 간행했는데 이들은 주로 토지와 세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의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주장”은 줄곧 정책적 배려에서 제외되었고, 언문으로 기록되지 않아 일반

한국 農學의 발전과정을

과학사와 기술사의 '겹눈'으로

살피고 있는 이춘녕교수는

특히 유학자가 쓴 農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책적 배려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진흥을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주장을

이 농서들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에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채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이교수는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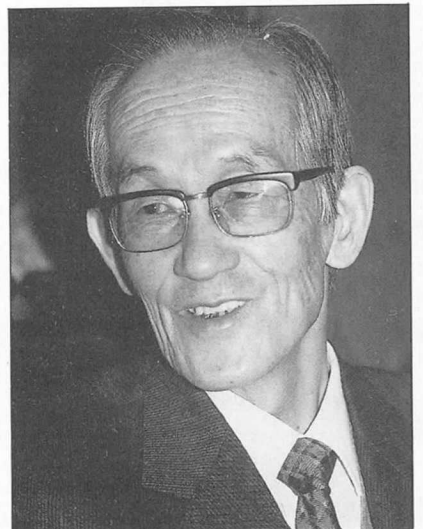
격동의 근대사 초입에 해당하는 개항기는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고 자생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자 한 것이 시대정신이였다. 농학사에 있어서도 이 시기는 서구의 근대농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그 싹이 제거되고 말았다.

“식민지시대 우리 농학은 일본의 자국이익만을 위한 식민정책때문에 발전의 폭이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식량확보와 방적공업 원료확보를 위해 쌀과 목화재배가 강제되면서 근대농법이 유입됩니다.”

일제시대의 농업은 일단 우리 고유의 농학적 특징이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교수는 고대농학과 근대농학이 결코 단절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데, 근대농학 그 자체가 과거의 기술을 밑거름으로 삼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갖는 특유의 정체성이 급격한 변화 자체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 이교수의 지적이다. 해방이후의 농학에 대해서는 61년 이후의 농업개발을 높이 평가하면서 “유전공학을 통한 제2의 녹색혁명 가능성 등 앞을 내다보는” 농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李朝農學技術史」 등은 일본어로 번역되기도

서울대 농대의 전신인 수원고등농림학교농과를 졸업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농화학과 생화학을 전공한 이교수는 농학사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다. 해방이후 「朝鮮農學技術史」를 을유문화사에서 기획한 「조선농업문고」의 하나로 상재했지만 곧이어 터진 전쟁으로 사실상 사장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러



이춘녕박사

나 54년에는 앞의 책에 대해 홍이섭교수가 「역사학보」에서 높이 평가하는 등 뒤늦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64년 한국연구원에서 간행한 「李朝農業技術史」는 아직도 중요한 논저로 인정 받고 있다. 이 책은 작년에 경도대학의 명예교수인 飯沼二郎가 일어로 번역, 우리 농업기술사를 일본학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교수는 농학 관련저서 이외에도 전공과 관련된 「천연향료와 식용색소」 「유기화학」 「생화학」 등의 저서가 있다. 농학사에의 관심은 일종의 외도가 아니냐는 주변의 짓궂은 질문에 대해 이교수는 국사학계의 태두이신 선천 斗溪 李丙燾박사의 영향과 도움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83년 서울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젊은이와 학문적 대화를 나누는 기쁨”에 경희대와 인하대에 출강하고 있다. 유머러스하고 내용있는 강의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원칙은 양보하지 않는 이교수는 또 하나의 저술을 구상중이다.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써온 쌀에 대한 논문을 정리, 「쌀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쌀의 기원으로부터 재배, 이용 등의 역사가 흥미있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꾸준한 집필에 두고 있는 이교수는 최근 우리 농촌 현실에 대한 타개책을 묻자 곤혹스러워 하며 “과거와 같은 증산정책은 유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지금 겪고 있는 농촌문제는 단기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우 기자